

韓國古代伽藍配置新考

金正基

1. 序

古代建築 가운데 建築群을 이루고있는 施設로는 王宮과 寺刹이 代表的인 것이며 일찌기 建築史研究의 한 重要對象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다를 바 없고 王宮과 寺刹의 建物配置와 그의 構成등에 關係 많은 關係를 建築史研究者들은 갖고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王宮은 古代로 부터 中世의 것은 전혀 遺存하지 않고 그의 遺蹟조차도 殘存狀態가 좋지 못했고 또 그에 대한 學術的 發掘調査가 充分치 못하여 詳細한 研究資料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高句麗와 百濟의 그것이 그러하고 新羅의 王宮址 즉 月城 역시 遺蹟으로는 잘 남아 있는 듯 하나 調査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高麗王都인 開城의 王宮址는 比較的 遺蹟도 잘 남아 있고 關聯된 文獻도 적지 않아 얼마간의 研究가 이뤄졌으나 아직 本格的인 發掘調査는 實施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王宮에 比하면 寺刹은 古代로 부터 繼續 法燈을 이어오는 寺刹이 적지 않고 또 寺刹址에 대한 發掘調査도 日政時 부터 近來에 이르기 까지 比較的 많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關한 研究도 적지 않다. 특히 最近에 있었던 慶州地方에서의 寺刹에 關한 發掘調査는 그것이 純粹한 學術調査를 目的으로 한 發掘調査 以外에 遺蹟의 復元, 淨化를 위한 事前調査나 塼 建設에 따라 水沒되는 遺蹟의 調査등으로 比較的 많은 發掘이 있어 이 部門에 대한 새로운 資料들이 發見되어 그 成果가 적지 않았다. 이들 慶州地方에서 實施된 最近의 發掘調査에 의하면 從來 學界에서 定說처럼 되었던 主張이 修正되어야 할 點도 있고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事實들도 밝혀졌다.

이러한 새로운 事實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古代 寺刹의 建物 配置 樣式과 그 影響을 概觀하고 아울러 새로운 問題點을 提起檢討하려한다.

2. 高句麗·百濟의 伽藍

高句麗 寺刹의 대한 發掘調査는 日政時에 實施된 것 以外에는 資料를 얻지 못했으며 1937년에 平原郡 元五里 寺址(註1), 1938年 平壤 淸岩里寺地(註2), 및 1939년에 實施된 上五里寺址(註3)가 있다. 이들 세 곳의 寺址 가운데 元五里寺址는 巨大한 石段과 몇 몇 礎石이 發見되고 泥佛등의 遺物도 出土되기는 했으나 遺蹟의 破損 攪亂이 甚하여 伽藍配置를 짐작할 수 있는 資料는 얻지 못했다. 淸岩里寺址에서는 中央에 八角基壇으로 된 建物이 있어 그 周邊에서도 建物址가 確認되어 寺刹의 中心部에 대한 建物 配置 樣相을 알 수 있었고 上元里寺址에서도 淸岩里寺址와 같은 모습의 八角基壇이 確認되어 淸岩里寺址와 같은 伽藍配置를 갖는 寺址임을 알게 되었다.

淸岩里寺址는 遺蹟 中央部에 生土인 風化된 岩盤을 깎아내어 一辺 約9.5m인 平面 八角의 큰 規模의 基壇이 있었고, 이 基壇 周邊에는 中 約0.7m로 자갈을 깔고 있었다. 이 八角基壇의 北쪽에는 約 13m 떨어져 南向한 正面 32m, 側面 16m程度의 建物基壇이 있었고, 八角基壇의 東, 西쪽에도 各各 約 10m 떨어져 西, 東向한 正面 27m, 側面 14m程度의 建物基壇이 있었고 이들 基壇 周邊에도 자갈을 깔고 있었다. 八角基壇의 南쪽에는 역시 約 10m 떨어져 門址가 確認되고 있다.

이러한 建物の 配置는 從來 알려진 寺刹의 伽藍配置와는 매우 異質인 것으로 一部 學者 사이에서는 이 遺蹟이 寺址가 아닌 다른 建物群으로 된 遺蹟이 아닌가 하는 見解도 있었다. 그러나 1956年과 57年의 兩次에 걸쳐서 日本 奈良 近郊에 있는 日本 最古의 寺刹로 알려진 飛鳥寺의 遺址 發掘에서 塔을 中心으로 하여 北·東·西쪽에 金堂과 金堂的인 建物이 配置된 伽藍配置가 確認되어 淸岩里寺址가 分明한 寺址로서 塔을 中心으로 한 三面에

金堂이 配置되는伽藍은 上吾里廢寺와 같은 高句麗 寺刹의 典型的인 伽藍配置였음을 알게 되었다.

百濟의 寺址는 百濟가 처음 都邑한 漢山地域(서울近郊로 推定하고 있음)에서는 古文獻에 八寺가 있었다는 記錄이 있으나 寺址는 아직 確認되지 않았다. 百濟가 都邑을 옮긴 公州와 扶余地方과 益山地方에는 百濟의 寺址가 남아 있으나 그 大部分은 扶余에 集中되어 있다. 이들 寺址 가운데 發掘調査된 것은 日政時에도 몇 곳이 있었고 光復 후에도 계속 發掘되어 왔다.

日政時에 調査된 寺址 가운데 伽藍配置가 確認된 것은 1935年과 36年の 兩次に 걸쳐서 發掘된 扶余 軍守里寺址(註4)와 1938년에 調査된 扶余 東南里寺址(註5)가 있고 그밖에 窺岩里寺址, 扶蘇山寺址등 몇몇 寺址는 伽藍配置를 確認치 못했다. 光復 후에는 1962년에 金剛寺址 發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寺刹 中心部 外에 三面僧房의 遺構가 發見되었고(註6), 益山 彌勒寺址의 東塔址가 發掘되었다.(註7)

軍守里廢寺는 中門·塔·金堂 및 講堂이 一直線上에 配置되고, 中門 兩側面에서 나와 講堂 兩側에 到達하는 廻廊이 塔과 金堂을 둘러싸는 伽藍으로 講堂 左右 廻廊隅部에는 鐘樓와 經樓에 터로 보이는 建物址가 있었다. 또 이 廢寺에는 金堂의 左右 位置의 廻廊 外에 각각 한 채의 建物址가 있었다.

東南里廢寺는 軍守里廢寺와 거의 같은 形式의 伽藍配置였으나, 다만 여기에는 古代 寺刹에 必需的인 塔이 없는 伽藍으로 特殊한 寺刹의 例가 된다.

定林寺址는 講堂 左右에 鐘樓나 經樓로 생각되는 建物址는 確認되지 않았으나 塔은 軍守里廢寺의 경우 木塔이었으나 여기는 石塔이라는 점이 다른 伽藍配置는 軍守里와 같은 것이었다.

金剛寺址는 거의 東向한 伽藍이었으며 中門·塔·金堂 및 講堂이 一直線上에 配置되어 塔과 金堂이 中門 側面에서 나와 講堂 側面에 닿는 廻廊에 둘러싸인 軍守里廢寺와 같은 配置였다. 이 寺址의 特性은 講堂 뒷 쪽과 北 廻廊의 북쪽 측 廻廊 外에서 커다란 僧房址로 보이는 建物基壇이 確認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金剛寺는 講堂 뒤와 左右 廻廊 外에 僧房이 配置되는 所謂 三面僧房의 制度를 固守한 伽藍이었으리라고 믿어진다. 우리나라 寺刹址에서 僧房址가 確認된 것은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다. 또 이 절의 創建時의 建物基壇 가운데 中門과 塔·金堂이 모두 版築工法으로 築造된 것도 하나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 以外에 百濟의 寺址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으로 益山 彌勒寺址를 看過할 수 없다. 彌勒寺址에는 지금 雄壯한 西塔이 半破된 狀態로 남아있으며 1975년에 東塔址가 發掘되어 西塔과 똑같은 規模 形式을 갖춘 石塔의 基壇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彌勒寺의 伽藍配置에 대해서는

藤島良治郎氏의 軍守里廢寺와 같은 形式의 伽藍 셋이 品字形으로 配置된 것일 것이라는 推定이 있을 뿐(註8) 아직 아무도 그 正確한 配置樣式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以上 發掘調査를 통해 確認된 高句麗와 百濟의 伽藍配置를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高句麗는 그 調査例는 적으나 淸岩里廢寺의 伽藍配置가 上五里廢寺와 同一하며 따라서 高句麗 寺刹의 典型的인 配置라 할 수 있고 그것은 塔을 中心으로 하여 北쪽과 東·西쪽 三方에 金堂 또는 金堂的인 建物이 配置되는 樣式으로 三金堂式伽藍配置라고 할 수 있다.

百濟의 것은 伽藍配置를 確認하지 못한 彌勒寺에 대하여는 將來의 調査研究에 맡기고 그밖의 軍守金廢寺와 定林寺, 金剛寺등의 경우와 같이 中門, 塔, 金堂 및 講堂이 一直線上에 配置되고 中門과 講堂을 廻廊으로 連結하여 塔과 金堂을 둘러싸는 것이 百濟의 典型的인 伽藍配置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一塔式伽藍配置라고 한다.

다만 東南里廢寺만은 一塔伽藍配置와 비슷한 配置나마 塔을 欠하고 있다. 이에 대해 一部 學者들은 金堂前方 左右에 塔이 있었을 것이라고 推定하여(註9) 新省에서 發生하는 雙塔式伽藍의 始源이라고 하나 이것은 全体伽藍의 配置構成으로 보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마도 佛國寺의 極樂殿 一廊과 같은 性格의 것으로 祖先의 冥福을 祈願하는 願堂的인 寺刹이었을 것이다.

3. 高句麗·百濟伽藍의 日本에의 影響

日本の 佛敎文化는 百濟로부터 傳해진 것으로 알려져 왔고 따라서 日本의 最初期에 建立된 寺刹은 百濟의 典型的인 伽藍인 一塔式伽藍이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그의 代表的인 寺刹이 大阪市에 있는 四天五寺이며 따라서 日本에서는 一塔式伽藍을 四天五寺式伽藍이라고 한다. 그러나 1956年과 57年の 兩次に 걸쳐서 日本 奈良地方에 있는 飛鳥寺址의 發掘調査에서 그러한 一塔式伽藍 以外에 高句麗系統의 伽藍인 三金堂式伽藍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飛鳥寺는 元來 法興寺 元興寺등으로 불렸던 寺刹로서 日本에 佛敎가 傳해져서 얼마동안 佛敎 信奉派와 反對派의 對立이 있었을 때 信奉派의 領神인 蘇戒馬子가 自己 邸宅을 버리고 寺刹을 만든 日本 最初의 寺刹이었던 것이다. 이 寺刹의 伽藍配置가 高句麗系統의 伽藍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비로소 日本文化에 미친 高句麗文化의 影響에 대해 再認識되기 시작했고 學界에 커다란 波紋을 던졌다. 그러나 一部 學者 中には 日本이 高句麗에서 直接 影響받은 것이 아니고 高句麗에서 百濟로 그리고 그것이 日本으로 傳해진 것이라는 主張이 있었고, 그 根拠로 軍守里廢寺의 金堂 左右便의 廻廊 外 建物址를 指摘했다(註10). 그러나 古代伽藍에 있어서의 廻廊 内部와 外部와의 空間의 神聖度의 差異로 보아도 三金堂의 東·西 두 金堂이 廻廊 外部 측 僧侶들

의 居住生活空間이며 俗人들이 出入할 수 있는 空間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取할 바가 못된다.

이 三金堂式伽藍은 日本에서 飛鳥寺 以外에는 아직 確認된 寺址가 없다. 그러나 飛鳥寺發掘에 이어 1957年과 58年의 兩次に 걸쳐 實施된 川原寺의 發掘에서 確認된 伽藍配置는 飛鳥寺의 伽藍과 깊은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川原寺의 創建에 關해서는 確實치 않으나 7世紀 後半에는 創建되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며 그 伽藍은 三金堂式伽藍配置에서 東金堂을 除去한 形態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塔을 東쪽에 配置하고 金堂을 西쪽에 北金堂을 配置하고 中門 兩側에서 나온 廻廊이 塔과 西金堂을 둘러싸서 北金堂 兩側面에 닿았고 講堂은 北金堂 뒷 쪽에 配置했다. 이것은 三金堂式伽藍 즉 高句麗系統의 伽藍의 變化된 形態로 밖에 볼 수 없는 伽藍配置이다.

또 日本에서 創業된 극히 日本的인 伽藍配置라고 알려진 것에 法起寺式伽藍과 法際寺式伽藍이 있다. 法起寺式伽藍은 川原寺의 北金堂을 講堂으로 만든 樣式으로 만든 法起寺式伽藍의 塔과 金堂의 位置를 서로 바꾼 것이 法際寺式伽藍이다. 따라서 이 法際寺와 法際寺式伽藍 역시 그 源流를 高句麗의 三金堂式伽藍에서 찾을 수 있고 이어 變形 略式이다. 이러한 川原寺나 法起寺, 法際寺式 伽藍의 存在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確認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變化는 日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百濟의 典型的인 伽藍配置인 一塔式伽藍配置는 日本의 四天五寺를 비롯하여 法際寺의 前身인 共草伽藍, 中官寺 등이 初期의 寺刹이며 이어 山田寺 片岡王 등, 橘寺 등 많은 古代 寺刹이 있다.

이렇게 보면 日本의 古代 伽藍은 그 初期에는 高句麗의 影響을 強하게 받았고 이어 百濟의 影響을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高句麗系의 伽藍도 變形되면서 相當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특히 百濟系의 伽藍은 四天五寺나 法際寺 前身인 若草伽藍과 橘寺 등 日本 五室과 깊은 關係가 있는 寺刹임을 볼 때 혹시 日本에서 崇佛派가 得勢하여 國家的 寺刹이 建立되면서 百濟系統의 伽藍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4. 新羅의 伽藍

新羅의 伽藍으로서 從來 三國時代에 建立된 伽藍은 모두 一塔伽藍으로 생각되어 왔고 그 代表的인 것으로 興輪寺, 皇龍寺 및 芬皇寺 등이 꼽힌다. 그러나 政府의 古都 發掘事業의 一環으로 시작된 慶州地域의 觀光開發事業에 의해 興輪寺址의 一部, 皇龍寺址, 高仙寺址 및 佛國寺 등의 遺蹟이 發掘調査되었고 學術的인 目的에 의하여 芬皇寺와 望德寺址의 發掘調査가 있었다.

이러한 몇곳의 遺蹟 發掘結果 從來의 新羅의 伽藍에

대한 見解를 大幅的으로 修正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重要的인 調査가 皇龍寺址와 高仙寺址 調査에서였다.

皇龍寺는 真興王27年(566年)에 完工되었다고 傳하는 寺刹이기는 하나 新羅三寶의 하나인 九層木塔은 護國을 祈願하기 위하여 善德王14年(645年)에 完成된 것이다. 이 寺刹은 新羅寺刹 가운데 最大의 規模를 갖춘 것으로 木塔은 總高 80余m나 되어 世界 最高의 木造建物이었다고 한다. 이 寺刹의 伽藍配置에 대해서는 일찌기 藤島亥治郎氏의 研究가 있어^(註11)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一塔式伽藍으로 생각되어 아무도 이를 疑心치 않았다. 그러나 197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그 調査가 進行中인 寺刹의 發掘調査에 의하여 一塔式伽藍이 아니고 高句麗系의 三金堂式伽藍의 影響을 強하게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伽藍의 中心部는 中門, 塔, 金堂 및 講堂이 南北 一直線上에 配置된 점이 一塔式伽藍과 같으나 여기에는 金堂 左右에 金堂 基壇보다 좀 작고 낮은 別途의 建物이 配置된 점이 가장 두드러진 差異點이었다. 이밖에 塔 南쪽 左右에도 正, 側面이 5間이며 4面에 階段이 있는 建物址가 發見되어 이 두 建物은 鐘樓와 經樓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金堂 左右와 塔 南쪽 左右에 이때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建物이 配置되기 때문에 中門 兩側에서 나와 講堂 兩側에 붙는 것으로 생각됐던 廻廊의 東·西 幅이 매우 넓어졌다. 이 廻廊 가운데 講堂 左右의 것은 廻廊이 아니고 樑間이 3間的 길쭉한 建物이었고 이 建物の 東, 西 끝 南邊에 東, 西 廻廊이 닿게 되었다. 東, 西 廻廊은 普通 잘 알려진 樑間이 한 칸인 單廊이 아니고 樑間이 두 칸인 復廊이었으며 이것 또한 새로 알려진 重要的인 事實이었다. 中門 兩側에서 東, 西로 뻗는 南廻廊 역시 樑間 두 칸의 復廊이었고 이 南廻廊이 각각 東廻廊과 西廻廊에 直接 連結되지 않고 계속 東, 西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廻廊 形態 역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日本의 古代 伽藍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 알려진 事實이다.

興輪寺址의 發掘은 慶北市內에서 京釜高速道路 進入路인 金城路를 새로 開設하는데 寺址 西端部가 一部 이 道路에 걸리게 되어 그 部分만 調査한 것이었다. 調査結果 寺址 西廻廊 北半部의 극히 一部와 講堂基壇의 痕跡만을 確認했을 뿐 伽藍配置를 究明할 수 있을 資料는 얻지 못했다.

芬皇寺는 寺刹側의 要請으로 東國大學 博物館이 金堂址로 생각되는 現 普光殿基壇附近을 發掘했고 金堂址 基壇의 版築土를 確認했다는 말을 들었던바 있으나 아직 이 調査에 대한 報告書가 發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內容을 알 수 없다.

望德寺址는 1969年과 70年의 兩次に 걸쳐서 發掘調査되어 金堂址, 塔址 및 中門址와 廻廊址가 調査되었고 講

堂址에는 近世의 建物址가 있었으나 元來의 講堂址는 破損 攪亂이 甚하여 確認하지를 못했다. 이 望德寺의 金堂址 左右에는 感恩寺나 仏國寺에서 볼수 있는 翼廊 즉 金堂 左右에서 東, 西 廻廊에 達하는 또 하나의 廻廊이 있어 우리나라 雙塔式伽藍의 基本形態가 金堂옆에 翼廊이 붙는 形式임이 確認되었다.

仏國寺는 7979년에 復元工事의 事前調査로 實施된 것이나 伽藍配置上에 特記해야 할만한 資料는 없었다.

高仙寺址는 그 一帶가 새로 마련된 댐에 의하여 水沒되게 되었기에 水沒되기 전에 三層石塔을 慶州博物館으로 移建하고 寺址는 發掘調査케 된 것이다. 高仙寺는 7世紀末 感恩寺보다 좀 늦게 創建된 것이며 寺址에는 國寶로 指定된 巨大한 三層石塔이 있었다. 發掘結果는 現存한 石塔 東쪽 좀 北으로 치우친 곳에 金堂址가 있고 金堂坦 北쪽에 講堂址, 金堂址 南쪽에는 中門址가 있었으며 中門 側面에서 講堂 側面에 達하는 廻廊이 있었다. 이것은 마치 扶余 東南里廢寺의 伽藍과 비슷한 것이나 이 石塔 周圍에도 金堂 周圍와 別途로 廻廊이 돌고 있으며 이 두 廻廊 가운데 南廻廊은 서로 一直線上에 나란히 位置하고 金堂側 西廻廊의 南半부와 塔側 東廻廊은 서로 接치고 있어 이 部分이 複廻廊으로 되었는데 調査者는 當初는 複廻廊이 아니고 서로 共用한 單廻廊이었던 것이 後에 複廻廊으로 改造되었다고 한다. 어떻든 金堂을 中心으로 한 一廓 말하자면 金堂院과 塔을 中心으로 한 一廓 즉 塔院이 東西로 나란히 配置된 伽藍樣式이 統一新羅 初期에 있었다는 것은 剛期的인 事實이었다^(註12).

以上の 근래에 慶州地方에서 있었던 寺址 發掘의 成果를 바탕으로 新羅의 伽藍에 대해 考察하면 몇가지 事實을 새로이 알수 있게 된다.

三國期の 新羅 伽藍에 있어서 從來 생각했던 一塔式伽藍의 存在가 確認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一塔式伽藍이 없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新羅 寺刹 가운데 가장 初期 寺刹에 속하는 皇龍寺 伽藍이 一塔式伽藍이 아닌 高句麗系의 三金堂式伽藍에 類似한 藍이었다는 점이 重要한 根拠가 된다. 皇龍寺의 伽藍은 三金堂式 伽藍의 東, 西 金堂을 北金堂의 左右에 畝긴 形態이다. 이에 따라 東, 西 廻廊의 距離가 커지게 됨으로 塔 前方 左右에 넓은 空間이 自然的으로 생기게 되어 全体 建物의 配置上 鐘·經樓로 그 空間에 配置하였다. 이것은 高句麗의 三金堂式伽藍을 變形하여 新羅에서 하나의 새로운 伽藍으로 發展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고 新羅의 強한 個性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皇龍寺보다 먼저 建立되었다고 생각되는 興輪寺의 伽藍이 百濟系의 一塔式伽藍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하물며 그 創建者가 高句麗僧 阿道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직 本格的인 興輪寺址에 대한 發掘이 없기에 알 수는 없는 일이나 興輪寺伽藍 역시 高句麗系의

伽藍이거나 그것을 新羅의 으로 變形한 伽藍일 可能性이 큰 것이다.

또 芬皇寺 역시 一塔式伽藍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最近에 筆者가 芬皇寺의 現況을 觀察하여 塔院과 金堂院이 南北으로 並置되어 西向하는 伽藍이 아니었을까 하는 試論을 낸 바 있는데^(註13) 一塔式伽藍이 아닐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統一 直後에 建立된 四天五寺址는 아직 本格的인 發掘 調査가 實施되지 않았으나 地表에 東西의 木塔址와 金堂址 및 金堂 뒷 쪽 東西의 鐘, 經樓址가 잘 나타나 있어 일찍부터 塔이 金堂 前方左右에 配置되는 樣式인 雙塔式伽藍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알려진 寺刹로는 이 四天五寺가 가장 오래된 雙塔式伽藍으로 이것이 바로 望德寺, 感恩寺 그리고 仏國寺 및 千軍里廢寺로 連結되는 統一新羅의 典型的인 伽藍配置이다. 다만 望德寺址와 感恩寺址 및 仏國寺에서는 翼廊이 確認되어 있으나 日政時 發掘 調査된 千軍里廢寺에서는 翼廊이 確認되지 않았다. 이 千軍里廢寺의 翼廊에 關해서는 그 報告書를 檢討하고 또 調査者가 作成한 伽藍復元圖등으로 보아 거의 틀림없이 翼廊이 있었다는 見解를 이미 筆者가 論한 바 있었으나 四天五寺에 대해서는 判斷하기 어렵다. 그러나 望德寺, 感恩寺, 仏國寺에서 翼廊이 確認되었고 千軍里廢寺에도 翼廊이 있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新羅의 雙塔式伽藍에서는 翼廊이 있는 것이 典型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四天五寺에도 翼廊이 있을 可能性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지 四天五寺에는 金堂 뒷 쪽 左右에 鐘樓와 經樓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金堂에서 左·右 廻廊에 翼廊을 配置할 경우 매우 複雜한 伽藍이 된다. 그리고 四天五寺의 伽藍은 半面 構成面에서 單純하게 判斷한다면 皇龍寺伽藍과 有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皇龍寺伽藍에서 塔을 金堂으로 그리고 塔 앞 쪽 左右의 鐘, 經樓의 東, 西 塔으로 바꾸고 金堂을 除去하여 東, 西 金堂을 鐘, 經樓로 한다면 四天五寺의 伽藍을 이렇게 간단히 判斷하기는 어려우나 雙塔式伽藍이 新羅에서 나왔다면 一考의 價值는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런데 統一初期에 創建된 高仙寺 伽藍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金堂院과 塔院이 각각 別途 空間으로 區劃되어 한 寺刹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伽藍樣式은 高仙寺가 唯一한 것으로 筆者가 試案을 낸 芬皇寺의 伽藍配置에 대한 考察의 動機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伽藍配置를 밝히지 못한 寺址가 많으며 특히 慶州附近의 皇福寺址나 羅原里廢寺 및 獐項里廢寺등 塔의 立地狀態와 附近地形등으로 보아 그 寺址의 伽藍配置를 從來의 知識으로는 推定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寺址 가운데는 高仙寺와 같은 伽藍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다른 새로운 伽藍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아직

좀 더 이들 寺址에 대한 發掘調査없이는 正確한 新羅伽藍의 究明은 어렵고 또 그만큼 新羅寺刹의 伽藍에는 많은 問題가 있는 것이다.

5. 新羅伽藍의 日本에의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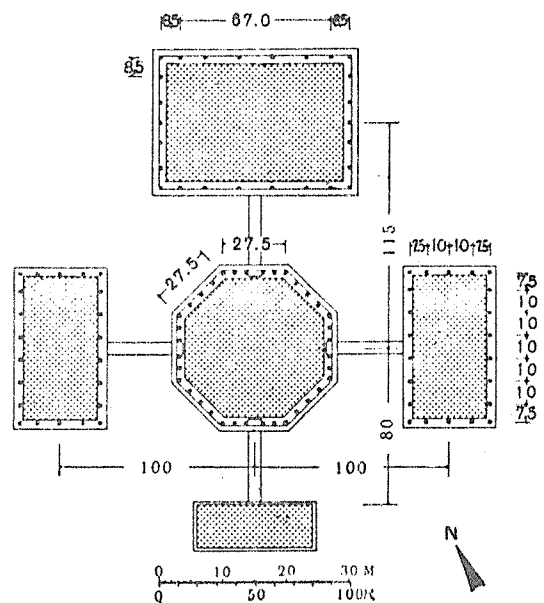
日本の 仏教伽藍은 그 初期에 高句麗의 影響을 強하게 받았고 이어 百濟의 影響이 있었으며 이 두 系統의 伽藍이 相當히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은 이미 말한 바이다. 그러나 新羅가 三国을 統一하여 半島의 唯一한 國家로 君臨하게 되자 곧 바로 그 伽藍 즉 雙塔式伽藍이 日本으로 日本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것이 日本의 藥師寺 이며 따라서 日本에서는 이것을 藥師寺式伽藍配置라고 했다. 그런데 日本의 雙塔式伽藍에서는 翼廊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점이 新羅의 雙塔式伽藍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日本의 雙塔式伽藍이 처음부터 翼廊이 없었던 것인지 혹은 当初 翼廊이 있었다가 후에 그것이 없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日本에는 原來 地理的 特性에 의해 木材의 大機가 豊富하여 木塔이 成行되었고 木塔의 規模도 比較的 크다. 따라서 廻廊 内部의 建物建의 配置 構成에 있어서 翼廊이 없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翼廊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그것이 当初 부터 그러했는지는 전혀 疑問이다. 藥師寺址의 精密한 發掘調査가 있고 또 그 遺蹟의 遺存狀態가 밝혀진다면 이 問題가 究明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은 그런 調査가 없었던 것 같다.

高仙寺의 伽藍과 類似한 伽藍配置를 갖는 것에 陸奥 国分寺와 그밖에 한 寺刹이 있어 이 伽藍 역시 日本에 伝해졌던 것을 알 수 있으나 아직 더 많은 類似한 寺刹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陸奥 国分寺는 高仙寺 보다는 훨씬 뒤에 세워진 寺刹이기 때문에 그 以前에 建立된 刹寺 속에 高仙寺와 같은 伽藍配置로 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그것이 아직 發見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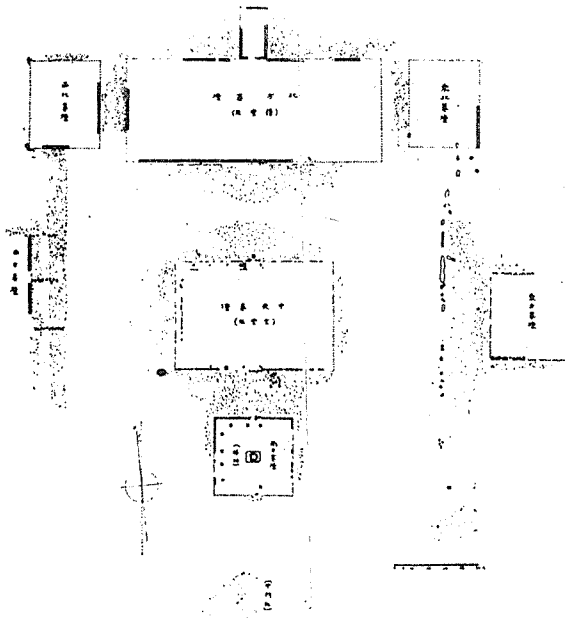
日人學者 가운데 一部 學者들이 主張하는 軍守里廢寺가 三金堂式伽藍의 變形이며 日本 飛鳥寺伽藍은 三金堂式伽藍이 일단 百濟에 伝해져서 그것이 다시 日本에 伝해져 飛鳥寺伽藍이 나왔다는 것이나^(註14) 東南里 廢寺의 金堂 앞 쪽 左右에 塔이 있었을 것이나^(註15)는 것은 모두가 古代 日本이 百濟와 親交가 있었다는 立場에서 될 수 있는대로 高句麗나 新羅와 直接的으로 文化的 影響을 받았음을 否認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 올바른 事實 認識이 아닌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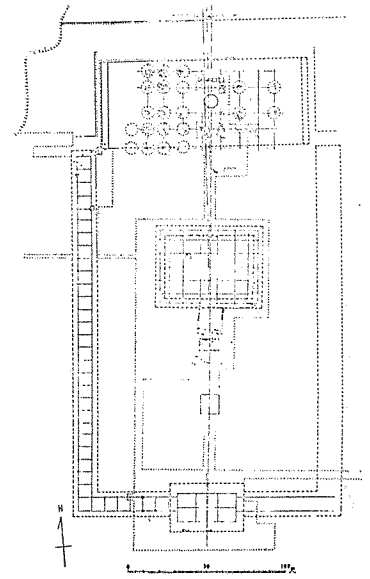
1. [昭和12年度 古蹟調査報告書] 朝鮮古蹟研究会刊, p. 63~72, 1938年.
2. [昭和13年度 古蹟調査報告書] 朝鮮古蹟研究会刊, p. 1~19, 1940年.
3. 金元龍[韓國美術史] 汎文社刊, 1968年 서울, p. 66~67.
4. 大川清編[百濟의 考古學] 雄山閣刊 1972年 日本東京 p. 342~348 参照
5. 上掲註2 p. 36~43.
6. [金剛寺] 国立博物館刊, 1969年 서울 参照
7. [西塔基礎調査報告書] (馬韓百濟文化) 創刊号 附録 円光大学校 1975年 参照
8. 藤島玄治郎「朝鮮建築史論(其5)」(建築雜誌) 1930年 7月 日本
9. 大川清編[百濟の考古學] 雄山閣刊, 1972年 p. 366~367参照
10. 上掲註9. p. 365参照
11. 藤島玄治郎「朝鮮建築史論(其1)」(建築雜誌) 1930年 2月, 日本
12. [高仙寺址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刊, 1977年
13. 原稿「芬皇寺伽藍推考」(考古學術) 奏弘燮博士回甲記念特輯, (134号, 135号合輯) 韓國美術史學會1978年
14. 上掲註10.
15. 上掲註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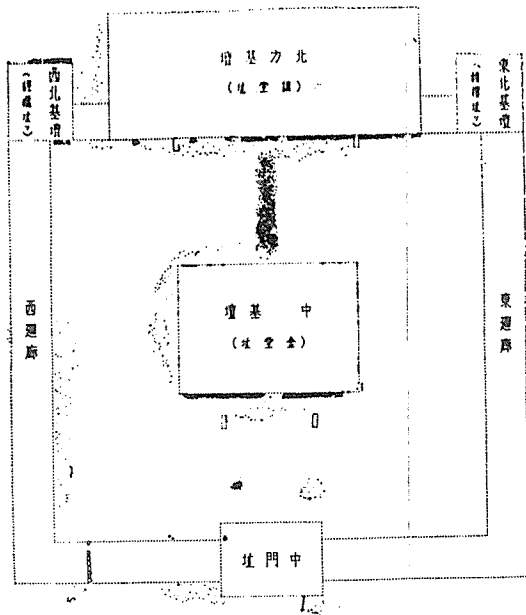
第1圖 清岩里廢寺伽藍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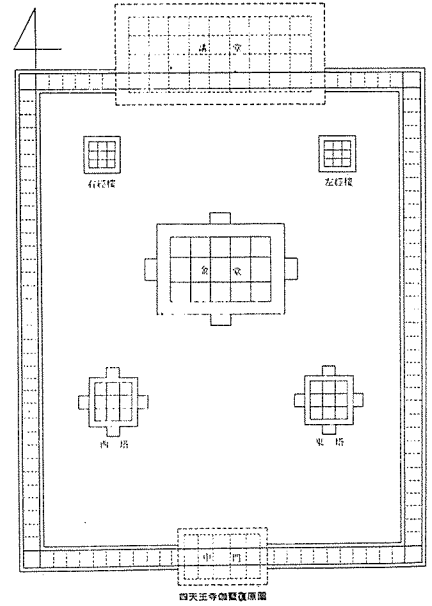
第2圖 扶余軍守里廢寺跡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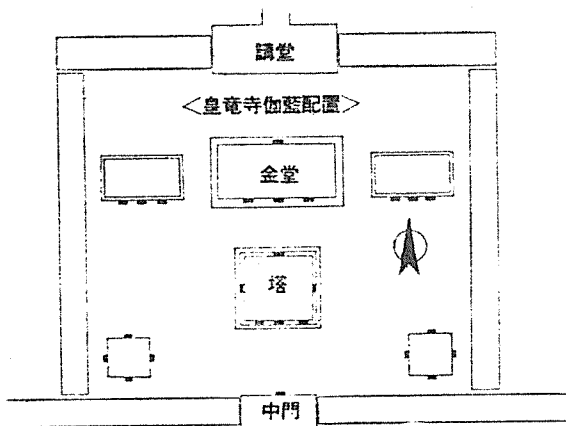
第4圖 扶余定林寺跡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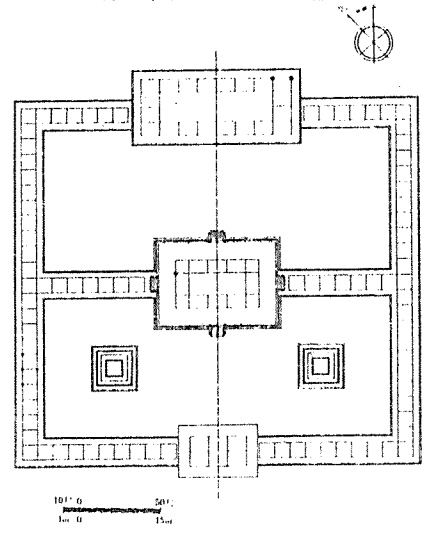
第3圖 扶余東南里廢寺跡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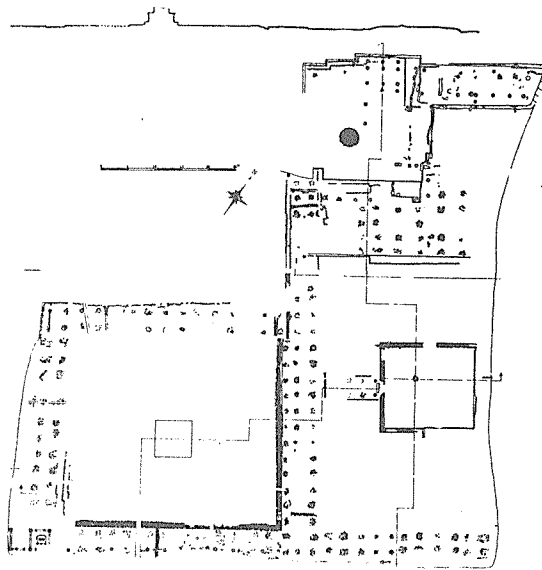
第6圖 四天王寺伽藍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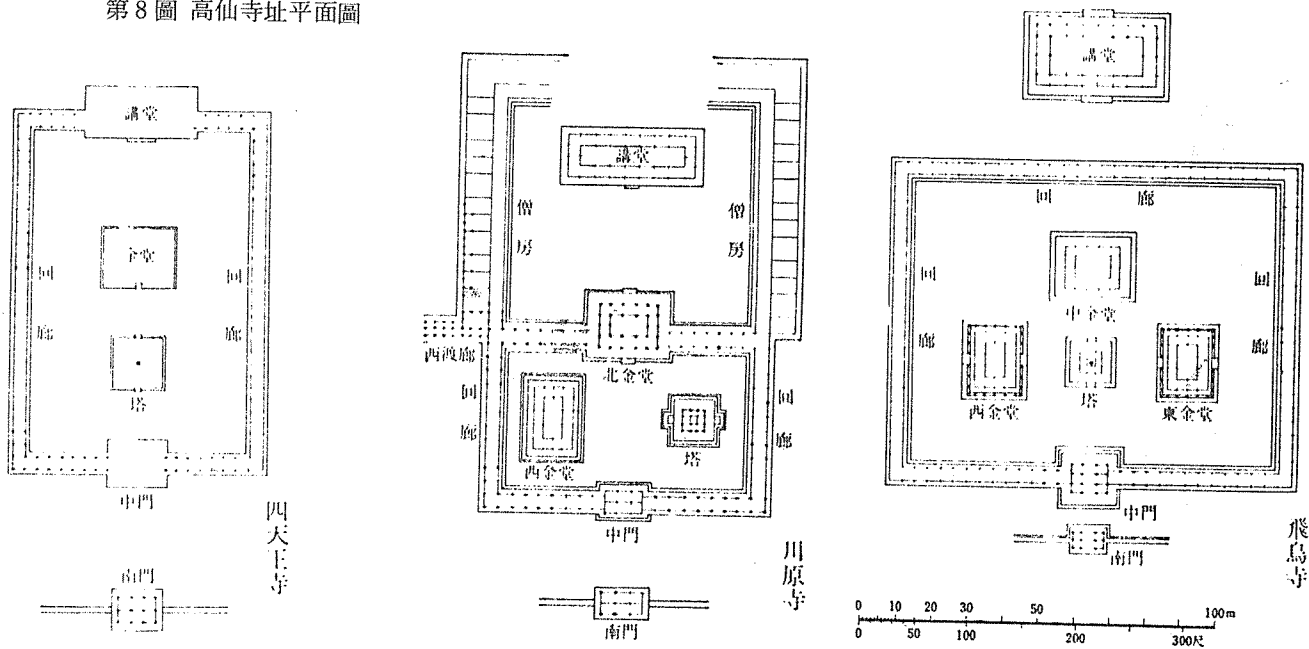
第5圖 皇龍寺伽藍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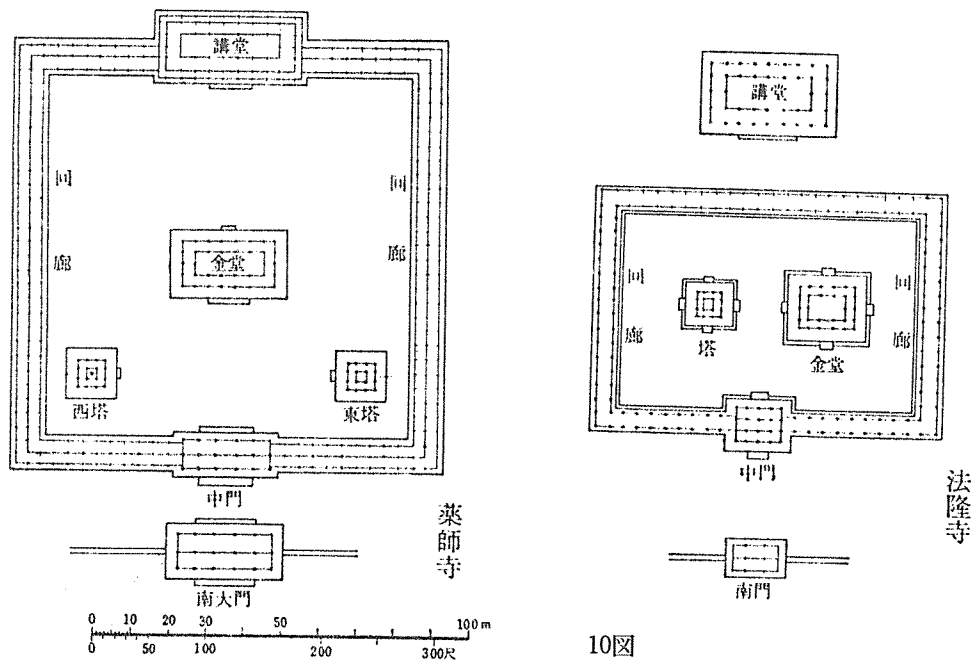
第7圖 感恩寺伽藍配置復原圖



第8圖 高仙寺址平面圖



9圖



10圖